

‘관수정(觀水亭)’ 차운시를 통해서 본 누정의 이미지화

— 송흙(宋欽)과 오응석(吳應錫)의 두 ‘관수정’을 중심으로 —

오 기 주*

차 례

1. 서론
2. ‘관수정’의 의미와 인식
3. 송흙의 ‘관수정’에 대한 경모(敬慕)의 이미지화
4. 오응석의 ‘관수정’에 대한 선양(宣揚)의 이미지화
5. 결론

| 국문초록 |

누정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룻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하고 벽이 없이 지은 집인 누각과 정자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누정의 창건은 퇴사나 낙향한 선비들이 노년을 한가롭게 지내기 위한 장소로 또는 그들을 위해 문중이나 제자, 친지들이 창건하거나 초야에 묻힌 선비가 혼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은일공간으로 창건하였다. 그러나 이 누정의 공간은 개인만이 아니라, 향리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매김했던 것도 사실이다.

산재한 많은 누정 중에서 송흙(宋欽)과 오응석(吳應錫)의 ‘관수정(觀水亭)’ 자료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송흙의 경우는 환로에 나갔다 낙향한 조사(朝士)이고 오응석은 향리에 머물면서 은일자적인 자세로 살았던 처사(處士)이다. 또한 두 사람의 누정의 전승과 계승의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문서자료가 현존한다. 두 누정은 오늘날에도 전남 장성군과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하지만 거리가 40여리 정도로 매우 가깝다.

후인들의 차운시는 두 사람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미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송흙의 경우는 金安國 등 동료나 梁彭孫 朴祐 등 제자 그리고 吳謙 金麟厚 등 후인들의 시에서 그의 고매한 인품의 경모를 드러냈다. 그리고는 아들 宋畚은 더 나아가 ‘관수정’에 아버지를 투사하여 가훈으로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모든 이가 송흙이 관수정에 낙향하여 살았던 모습을 경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이러한 기록이 『知止堂遺稿』에 전해지고 있다.

* 전남대학교

오응석의 경우는 처사로서의 존귀한 인품과 학덕을 선양하려 하였다. 향리의 후학들은 관수정을 선계로 그리고 은일자로서의 고고한 삶을 영위했던 삶을 선양하였다. 문중의 후손 吳相華 吳邦善 吳潤善 吳泰洙 吳亨洙 吳甲洙 吳旺根 등은 할아버지의 깨끗한 인품을 더더욱 선양하였다. 이러한 선양을 오래도록 보존하고자 『錦城世稿』를 발간하였으며 1992년 광주직할시에서 발행한 『樓亭題詠』에 등재하기도 하였다.

결국 두 누정의 주인에 대한 차운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선현의 칭송인 선조나 스승에 대한 찬미와 효사상의 발로임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누정, 차운시, 송흥, 오응석, 이미지화

1. 서론

누정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룻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하고 벽이 없이 지은 집인 누각(樓)과 정자(亭)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누정이 넓게 분포한 전라도 지방을 ‘정자문화권에 속한 사회’¹⁾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이 개념 정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전남 지역의 누정 보유 현황이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아 후대에서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²⁾에 수록된 누정은 전국 885개소 중에서 전라도에는 170개를 기록하고 있다. 1929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에는 경상도가 1천 295개로 가장 많고, 전라도(1,070개), 충청도(219개), 강원도(174개), 제주도(6개) 순이다.³⁾ 그리고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 7년간 조사 정리하여 보고한 전남의 누정은 모두 1,687개소에 달한다. 그 중 638개소가 조사 당시까지 현존한 것이고, 나머지 1,049개소는 현존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사라져버린 누정이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⁴⁾고 한다.

1) 최재율, 「全南地方 樓亭의 性格과 機能」, 『湖南文化研究』第二十四輯, 湖南文化研究所, 1996, 71쪽.

2) 여기서의 누정은 관청누정인 공루(公樓)와 민간누정인 사루(私樓)를 포함한 통계이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누정의 개념은 민간에서 개인이나 마을 또는 문중이 중심이 되어 조영한 사루를 말한다.

3) 이갑규·김신곤·김봉규, 『한국의 혼 樓亭』, 민속원, 2012, 11쪽.

4) 김신중, 「전남의 누정과 그 연구 동향」, 『국학연구론총』 제8집, 백민국학연구원, 2011, 245쪽.

또 하나는 누정의 기능적 관점을 강조한 경우이다. 누정의 공간은 ‘풍류·완상·은일·강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호남의 누정도 이런 기능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향촌의 선비나 유생들의 문화를 창조한 공간이 바로 누정이었다. 따라서 많은 호남 지방 누정은 선비들의 문화 창달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어 호남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는 전제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판단된다.

누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에서는 전남과 광주지역의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후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전남지역 누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⁵⁾. 즉 전남지방 누정의 성격과 기능, 사족의 누정건립, 누정의 경제 사회적 기능, 누정시단, 누정의 건축적 특성, 누정의 역사적 의미의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의 이외도 개별연구로는 유파를 중심으로 연구하거나⁶⁾ 누정의 차운시를 연구하기도 하였다.⁷⁾ 또한 그동안 연구를 바탕으로 호남 누정연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⁸⁾ 최근에는 전남대학교 호남한문고전연구실에서는 호남 누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호남누정기초목록』⁹⁾을 발간하였다.

호남 지역의 누정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서 ‘전승과 계승’이라는 관점의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어쩌면 국보 1호인 송례문이 하루아침의 화마에 소실되자 우리는 국보 1호라는 관점에서의 송례문 복원에 열광하였다. 국보 1호 송례문 복원에 전승과 계승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간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누정의 자연경관은 문학작품 대상이 되는 승경지로 인식하고 누정에 남겨진 시문은 누정 경영자의 인품이라고 성급한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교유하던 사람들의 시를 통해 그곳에서 소요하던 사람들의 자연관과 미의식¹⁰⁾을 추론하는 것만 우선하였다.

5) 『湖南文化研究』第二十四輯,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96년.

6) 권수용, 「노사학파의 누정 건립활동 연구」, 『石堂論叢』 49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7) 황민선, 「光州 風詠亭 次韻詩 고찰」, 『古詩歌研究第』 28輯, 한국고시기문화학, 2011.

8) 김신중, 「전남의 누정과 그 연구 동향」, 『국학연구론총』 제8집, 태민국학연구원, 2011.

9)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 누정 기초 목록』, 전남대출판부, 2015 참고.

10) 이현우, 「16-18세기 영·호남 누정에 깃든 문화경관의 의미론적 해석 -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 『문화재』 제45권 제1호, 2012, 197쪽.

그런데 우리는 왜 누정을 짓고 기문을 짓고 거기에 시까지 지어 현판을 달까? 무엇 때문에 주인의 시에 차운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체계적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만 누정의 전승과 계승에 대한 의도와 그 특성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본고에서는 ‘전승’과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누정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남·광주 지방엔 많은 누정이 보존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전남·광주에 보존된 송흙(宋欽)과 오응석(吳應錫)의 ‘관수정(觀水亭)’¹¹⁾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왜냐하면 송흙의 경우는 환로에 나갔다 낙향한 조사(朝士)였고 오응석은 향리에 머물면서 은일적인 자세로 살았던 처사(處士)였다. 환로 후 퇴직한 선비와 은일사로서 처사가 경영했던 누정의 차이점을 간접적이거나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사람의 누정의 전승과 계승의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문서자료가 현존한다. 여기에 두 누정의 위치는 현재 행정구역상 전남 장성군과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하지만 거리가 40여리 정도로 매우 가깝다. 그래서 간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전승’과 ‘계승’의 관점에 대한 논의는 두 사람과 관련된 문집¹²⁾에 실린 누정 원운시, 누정기문, 누정 원운시에 대한 차운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즉 ‘전승’의 관점에서 창건자의 원운 시와 누정 기문을 통해서 창건 의도를 확인하고 ‘관수정’ 의미를 정리하겠다. ‘계승’의 관점에서 누정의 주인 의도를 인식하고 차운한 시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미지화 하였는가를 추론하려 한다.

11) ‘관수정’이라는 키워드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10곳이 있다. 전남과 광주에는 송흙의 ‘관수정’(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 오응석의 ‘관수정’(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조여충(曹汝忠 1613-1678)의 ‘관수정’(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이강운(李康運)의 ‘관수정’(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화계마을), 김정추(金景秋)의 ‘관수정’(장흥군 장동면 봉동리 밤실마을)이 남아 있고 박철수(朴哲守)의 ‘관수정’(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곡성군 옥곡에 있는 ‘관수정’,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관수정’은 폐정되었다. 그리고 김대진(金大振 1571-1644)의 ‘관수정’(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6호)은 대구에 이봉서의 ‘관수정’(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221호)은 경남 함천에 있다.

12) 송흙의 『知止堂遺稿』와 나주오씨문중의 『錦城世稿』 참조.

2. ‘관수정’의 의미와 인식

누정은 대부분 전통사회의 양반출신의 동족집단이나 개인이 건립하여 ‘풍류·완상·은일·강독’ 외에도 여름철의 선비의 사랑방이나 강학의 공간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삶이 누정의 편액시를 통해서 드러난다. 실의하여 낙향한 조사거나 귀양으로 정착한 선비거나 퇴사하여 향리에 안주하려는 조사거나 은일자로서 삶을 영위하는 처사이거나 모두 누정은 소통의 공간 이기에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 즉 누정은 이념과 사유가 반영된 공간이다.

누정에 반영된 이념과 사유는 그 누정의 주인을 살펴봄이 먼저이다. 따라서 송흠과 오응석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관수정’이라는 편액을 달았을까? 아울러 그들이 누정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송흠은 관향이 신평(新平)이며 1459년에 문소전참봉 가원(可元)의 아들로 영광(靈光)의 삼계현(森溪縣)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그는 참판 송구(宋龜)의 증손으로 자는 흠지(欽之)며 호는 지지당(知止堂) 또는 그가 만년에 거처로 지냈던 ‘관수정’이다. 22세인 1480년(성종 11)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34세인 1492년(성종 23)에 식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승문원정자로 있으면서 김안국과 수학하였으며 전라도도사, 지평, 광주목사, 나주목사 등을 지냈다. 1534년에는 전라도 관찰사가 되었으나 99세의 노모가 병석에 눕자 사직하고 정성껏 봉양하였다. 이후 우참찬, 판중추부사 겸 지경연사(判中樞府事兼知經筵事)에 제수하였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1547년(명종 2)에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노모를 봉양하는 외에 처자와 노복이 겨우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는 정도의 가산을 유지하였기에 퇴사하여 고향에 돌아오면 한 섬의 곡식도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1515년(중종 10) 이후 1538년(중종 33)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청백리(清白吏)에 선록(選錄)되기도 하였다.

송흠은 환로에서 당대의 사화에 연루되지 않고도 교육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다. 그 당시 호남문단을 주름잡던 양팽손, 송순, 나세찬 등이 모두 그의 문인이었다. 특히 중종 36년(1541)에 영광으로 귀향하게 된 그는 명종 2년(1547) 8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6,7년간은 향촌 중심의 활동에 힘썼다. 향촌 생활의 중심 공

간이 바로 ‘관수정’¹³⁾이었을 것이다. 그 공간은 16세기 후반 호남 사림의 향촌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송흠이 쓴 〈관수정원운〉 시를 보자.

우뚝한 집 물가에 닿아 여름도 서늘하여	危構臨流夏亦寒
늙은이는 날마다 난간에 기대지 않은 적 없네.	老夫無日不憑欄
이미 골짜기 입구에 쌍계의 시냇물 오롯하니	既專谷口雙溪水
어찌 용문의 팔절탄 부러울까?	奚羨龍門八節灘
고요한 그림자 물에 잠겨 정말 즐길 만하니	靜影沈江眞可樂
비온 끝에 개인 단장은 더욱더 볼 만하네.	晴粧雨抹最堪觀
가지각색의 모습들이 눈을 흥미하게 하니	千姿萬態渾迷眼
반드시 맑은 물결을 길어서 내 마음 씻으려네.	要取清瀾洗我肝 ¹⁴⁾

송흠은 여름에도 서늘한 이 정자에 날마다 오르면 언제나 흐르는 물길을 볼 수 있어 팔절탄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 팔절탄(八節灘)은 중국 낙양 부근에 있는 물살이 센 여울로 배를 파선시킬 수 있을 만큼 험준한 곳이었다. 하지만, 백거이가 향산에 석루(石樓)를 짓고 팔절탄에 운하를 내어 배가 순조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향리의 노인들과 풍류를 즐겼다. 시인의 의도도 백거이처럼 외부와의 소통을 추구하면서도 향리의 유생들과 풍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련에서 시인은 가지각색들의 모습이 눈을 흥미하게 하지만, 흐르는 물결만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물을 관찰함으로써 흥미한 세계를 극복하는 공간이 ‘관수정’인 것이다. 그래서 세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물로 치유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결국 송흠은 환로에 있다가 낙향하여 은거하지만 끊임없이 격물치지하려는 자세를 통해 선비의 인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송흠이 직접 작성했던 〈관수정기〉에서도 정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13) 宋欽의 『知止堂遺稿』에 실린 소세양의 〈경차병서〉를 쓴 해가 가정(嘉靖, 명나라 세종 연호) 18년(8월 21일)이 1539년이므로 이러한 추정은 가능하다.

14) 宋欽, 〈觀水亭記〉, 『知止堂遺稿』 第二.

드러내고 있다. “냇가에 정자 몇 칸을 세운 것은 물이 가까운 곳에 의지하여 보고 즐기기 편하기 때문이다. 물을 보는 것은 물의 근본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맑음을 보고 그 마음의 사악함을 씻은 뒤에야 물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손들은 힘쓸지어다”¹⁵⁾고 하였다.

낙향하여 은거하면서도 내면의 마음을 닦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결을 통하여 물에 근본이 있음을 알고, 맑음을 통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수정’에서 물을 보는 핵심이다. 물은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파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본질은 자연스레 흘러가고 맑고 깨끗하다. 이러한 물의 성질을 깨달은 송흙은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내면을 맑게 하고 후손들에게도 면려하고 있다.

오응석은 관향이 나주이며 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아버지 오이해(吳以海)와 나주 나인해(羅仁海)의 따님 사이에서 1660년 광산(廣山)에서 태어났다. 자는 운경(運卿)이며 호는 광산재(廣山齋)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리하여 비범하여 한번 보면 모두 암송하였다. 언제나 강의를 들으면 그것을 이해해야만 끝마쳤으며 『사서집주』와 유가의 육경을 침잠 완미하며 먹고 자는 것도 잊고 노력하였다. 또한 대소 장례는 『주문공가례』를 실천하였으며 사람의 중요성과 검소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66세인 1726년에 자신의 백조(伯祖)인 오겸(吳謙 1496~1582)이 벼슬에 물러나 살았던 곳에다 초정을 짓고 ‘관수정’이라는 편액을 달았다.¹⁶⁾ 만년을 그곳에서 향리의 유생들과 교유하며 보내다가 1735년(영조 11)에 향년 76세로 자택에서 죽었다.

오응석이 지었던 <관수정원운> 시를 보자.

15) 宋欽, <觀水亭記>, 앞의 책. “余平生所觀亭樹多矣 地勢高爽 山水環拱 可以遠覽 快心目者則有之矣 若深山窮谷之中 溪流曲折 至林麓斷處 渟泓演迤如江漢之深廣者 則絕無焉 余今幸得之 豈非天慳地秘 而後顯耶 於是 構數間亭于川上蓋取其近水 而便於觀翫也 余觀夫天心 月到 則金壁沉浮水面 風來 則羅縠生紋 薄雨乍晴 濃淡交映 風恬浪靜 則潛鱗可數 而至於朝暉夕陰 奇態萬狀此皆亭之勝槩也 然外也 觀其瀾 而知其水之有本 觀其清 而洗其心之邪穢然後 可謂之觀水也 吾子孫勉之哉”.

16) 吳亨洙, <八世祖廣山齋府君家狀>, 『錦城世稿』, “府君所居 卽先伯祖錦陽君退老遺址 而其地背山臨水 有江亭數間 盤旋之趣 府君卽其數武地 又卜草亭 扁以觀水”.

십년이나 경영하여 집 몇 칸을 짓고	十載營成屋數椽
올라가 눈을 돌리니 긴 냇물만 오롯하네.	登斯騁目一長川
맑은 물은 멀리 동남 향으로 달려가고	清流遠走東南港
푸른빛은 위아래 하늘을 함께 이었네.	碧色同連上下天
비 온 뒤에 못 별은 손님 맞으려 목욕하고	雨後群星迎客浴
밤이 되어 밝은 달은 인간세상 가까이서 둥그네.	夜來明月近人圓
물 관찰에도 방법이 있어 놀라워하지 않으니	觀瀾有術無驚動
오래도록 앉아 한가로이 욕심 없는 신선이 되었네.	坐久閒偷物外仙 ¹⁷⁾

오염이 살던 곳을 정비하고 초정을 지었더니 물길에 있어 더욱 맑은 세계이다. 그렇기에 시인은 함련에서 초정을 둘러싼 물길이 하늘로 이어졌다고 묘사하여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경련에서는 하늘과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며 밤에도 둥근 달이 인간세계를 비춘다고 하였다. 이렇듯 숨어살지만 자신의 세계를 항상 지켜보는 존재들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미련에서 시인은 물의 관찰에도 방법이 있어 스스로 터득했다고 은근히 말한다. 그래서 오래도록 이 누정에서 살면 욕심이 없어져 눈을 돌릴 필요가 없는 신선이 되었음을 그리고 있다.

오응석은 ‘관수정’이 물을 보면서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터득하는 곳이며 은일자로서 여유를 갖고 거니는 공간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연물을 통한 격물치지의 자세를 드러내고 아울러 자신의 깨끗하고 고고한 인품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송흠과 오응석의 ‘관수정’에 대한 의미부여는 ‘관수(觀水)’의 의미를 확장하여 자신의 삶과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누정을 증언하면서 후인들은 두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 송환기(宋煥箕 1728-1807)가 쓴 <관수정중건기>와 1949년에 쓴 오현수의 <관수정 후기>를 보자.

17) <觀水亭原韻>, 『錦城世稿』卷之一.

(가)

맹자께서 관수(觀水)할진댄 반드시 그 물결을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다. 화옹(주자)께서 이를 인용하여 공자의 물가 탄식을 밝혔다. 앞선 성인과 뒤에 온 현인이 사람을 가르침에 근본에 힘쓴 의도가 매우 깊다. 지지당 효헌공 송흠(宋欽)이 대대로 영광의 삼계지역에 거주하시다가 늘그막에 용암천 가에 정자를 축조하셨다. 그 깊은 계곡 가운데 시냇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산기슭의 끝부분에 이르러 곤곤(滾滾)한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 한강처럼 깊고 넓음을 아꼈다. 이에 ‘관수(觀水)’로 그 정자 이름을 삼았으니 그는 근본에 힘쓰는 것을 엿보아 터득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가 스스로 지은 기문을 관찰하여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가 “그 물결을 관찰하여 그 물이 가진 근본을 알고 그 맑음을 관하여 그 마음의 사악하고 더러움을 씻는다.”고 말한 것은 의도가 깊고 의미심장하여 이에 자손들에게 힘써 노력하게 함이다. 이것은 어떻게 유독 정자의 경계에서 취한 것만 있겠는가?¹⁸⁾

(나)

이 정자의 이름을 ‘관수’라 하였다. 이 이름은 참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을 수 없는 아주 뜻깊은 명칭이다. 물을 보는데 있어서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맹자의 “관수유술(觀水有術)”이나 물의 흐름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공자의 “기칭어수(亟稱於水)”는 모두 물의 생리를 도의 본체에 견주어 그의 소신을 밝힌 동일한 의미이다.¹⁹⁾

두 자료를 읽어보면, (가)와 (나)는 누정의 원주인 의도를 확장하고 있다. 두 자료는 공자와 맹자의 관수관(觀水觀)에서 드러낸 물[水]의 인식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공자의 ‘관수(觀水)’를 보자. (가)에서는 ‘공자가 물을 보면 탄식하였다’는 고사의 의미를 확장하고 (나)는 공자의 ‘亟稱於水(기칭어수)’와 맹자의 ‘觀水有術(관수유술)’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인용한 공자

18) 宋煥箕, 〈觀水亭重建記〉, 『性潭先生集』卷之十四, 記. “鄒聖有觀水必觀其瀾之語 晦翁取以爲詞以贊孔夫子川上之歎 前後聖賢教人務本之意深矣 知止堂宋孝憲公世居莫城之森溪 晚歲築亭於龍巖川上 愛其深谷之中 溪流曲折 至林麓斷處 滄泓演迤 如江漢之深廣 乃以觀水名其亭 其非觀得於務本者耶 觀其所自爲記而有可認焉 其曰觀其瀾而知其水之有本 觀其清而洗其心之邪穢者 意甚雋永 而仍以勉勵子孫 是豈獨有取於亭之勝槩也哉”.

19) 吳憲洙, 〈觀水亭後記〉, 『錦城世稿』. “亭曰觀水 爲此名者 其知道乎 孟子所言 觀水有術 與孔夫子亟稱於水 同一義 諱蓋喻道體之有本也”.

의 이야기는 『맹자』 「離婁章句」를 전고로 활용하고 있다. 맹자의 제자인 서자(徐子)가 공자께서 자주 물을 칭송하시면서 ‘물이여 물이여’라고 하셨는데, 물에서 취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맹자가 샘물은 졸졸 솟아올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여 사방의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근원이 있다²⁰⁾고 하였다. 공자는 제자인 자공이 ‘군자가 큰물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물은 멈추지 않고 또 두루 미치기 때문에 모든 살아 있는 것에 허여하면서도 작위하지 않으니 무릇 물은 덕과 유사하다. 즉 물은 ‘도(道)’, ‘용(勇)’, ‘법(法)’, ‘정(正)’, ‘찰(察)’, ‘지(志)’, ‘선화(善化)’와 닮았으니 군자가 보면 반드시 그것을 관찰해야 한다고 하였다.²¹⁾

(가)에서는 직접적으로 전고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용한 맹자의 전거를 사용하였다. 맹자의 ‘관수’는 “물을 보는 데는 기술이 있으니 반드시 그 물결을 보아야 한다. 일월의 밝음이 빛을 용납하는 곳에는 반드시 비춘다.”²²⁾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누정 원주인의 의도와 맞아 떨어진다. ‘觀水有術(관수유술)’은 물이 근원이 있는 것처럼 성인의 학문도 그 근원이 깊다는 말이다. ‘必觀其瀾(필관기란)’은 모든 일은 높은 경지에서 체험해 보아야 그 나머지 사상(事象)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관(觀)’은 공자가 말한 ‘찰(察)’의 구체적 의미로 부드럽고 약하여 세밀하고 작은 곳까지도 통달함을 의미할 수 있다.

이렇듯 당대 유자들에게 스승인 공자와 맹자가 물의 덕성을 강조한 사실을 전고로 삼아 누정 원주인의 의도를 구체화하였다고 생각된다. 환언하면 두 누정 원주인은 학문의 근원이 깊고 사색을 통한 도(道) 또한 완성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생각된다. 또한 물의 흐름이 계속토록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도로 보인다. 맑고 깨끗한 물에서 취하려는 것은 도의 근원이며 그 도의 확장성을 이

20) 『孟子』 離婁章. “徐子曰 仲尼亟稱於水 曰水哉 水哉 何取於水也 孟子曰 原泉混混 不舍晝夜 盈科而後進 放乎四海 有本者如是 是之取爾”.

21) 『孔子家語』 三恕第九. “孔子觀於東流之水 子貢問曰 君子所見大水必觀焉 何也 孔子對曰 以其不息 且遍 與諸生而不為也 夫水似乎德 其流也則卑下 居邑 必修其理 此似義 浩浩乎無窮盡之期 此似道 流行赴百仞之嶮而不懼 此似勇 至量必平之 此似法 盛而不求概 此似正 綽約微達 此似察 發源必東 此似志 以出以入 萬物就以化聚 此似善化也 水之德有若此 是故君子見必觀焉”.

22) 『맹자』 盡心上. “觀水有術 必觀其瀾 日月有明 容光 必照焉”.

어가려는 의도라 판단된다. 아울러 물결은 외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에서 맑음을 유지한다. 그리고 물결은 큰 물결과 작은 물결처럼 기복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러한 외부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기복과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비가 물러나 갈 곳은 다름 아닌 고향이었다. 거기에는 익숙한 자연이 있고, 일가친척이 있으며, 친구가 있고, 전답과 노비가 있었다. 무엇에 더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강호자연을 벗어나 노래하기도 하고, 친척과 친구를 맞이하는 도리를 다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답과 노비에 대한 경영을 살뜰히 하여 집안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별개면서도 하나였다. 다만 조금 더하고 덜한 차이만이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선비의 중요한 역할은 교육에 있었다.

두 사람의 ‘관수정’ 편역의 의미는 소용돌이치는 인생살이에서 물처럼 맑고 깨끗한 자세를 갖기를 바람을 드러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조선 중기와 후기의 선비들이 모두가 추구했으리라 생각한다. 누정이라는 공간은 사화·당쟁으로 인한 초세(超世)의 은일관 및 도피적 은둔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수신제가와 격물치지를 통해 맑고 깨끗한 인품으로 안빈낙도를 추구하려는 몸부림도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3. 송흙의 ‘관수정’에 대한 경모(敬慕)의 이미지화

송흙의 ‘관수정(觀水亭)’은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내계리에 있으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되었다.

『지지당유고』를 보면, 송흙이 쓴 〈관수정기〉에 〈관수정 원운〉의 시가 있으며 아래에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이 쓴 〈경차(敬次) 병서〉와 시 1수와 함께 23인의 23제 30수의 차운시가 실려 있다. 23인은 소세양, 홍언필(洪彦弼, 1476-1549), 유부(柳溥, ?-1544), 김안국(金安國, 1478-1543), 성세창(成世昌, 1481-1548), 신광한(申光漢, 1484-1555),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임억령(林億齡, 1496~1568), 이문건(李文健, 1494-1567), 박우(朴祐, 1476~1547), 나세찬(羅世縉, 1498-1551),

문인인 양팽손(梁彭孫, 1488-1545), 안처함(安處誡, 1488-1543), 송순(宋純, 1493~1582), 정사룡(鄭士龍, 1491-1570), 오겸(吳謙, 1496-1582), 강종수(姜終壽), 정희홍(鄭希弘, 1499-?), 김익수(金益修), 노극창(盧克昌), 유사(柳泗 1502-1571), 정순봉(鄭順朋, 1484-1548)의 차운시가 1에서 3수까지 실려 있고 가족으로는 차남인 익경(益憬)의 시가 실려 있다²³⁾. 원운 시의 압운 자는 ‘寒, 欄, 灘, 觀, 肝’으로 되어 있다. 차운시 중에서 창작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네 부류로 분류하여 어떻게 이미지화하고 있는가를 살피려 한다.

먼저 환로에서 고락을 함께했던 김안국의 차운 시를 보자.

굳건히도 푸르른 소나무 추운 겨울 지내고	勁健蒼松閑歲寒
영화롭게 나그네 잠자리 꿈이 막 무르익네.	芬榮旅枕夢初闌
정자를 열고 앉은 곳은 한쪽이 물가에 닿아	開亭坐處偏臨水
지팡이 잡고 거닐 땐 가까운 여울 아끼네.	扶策行時愛近灘
귀에는 마침 좋은 음악 아련하게 들려오고	耳會韶音聊寓聽
마음은 융합된 도와 체 절로 자세히 살피네.	心融道體自耽觀
인간세상 온갖 즐거움 누라서 감히 대신할까	人間百樂誰堪代
해가 맑고 서늘해지면서 속마음을 비추는데.	日向清冷照肺肝 ²⁴⁾

김안국은 송흙의 삶에 대한 이미지를 ‘관수정’의 환경을 통해 투영하고 있다. 수련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나그네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화자는 시대의 어려운 삶을 굳건히 이겨내어 자신의 세계를 펼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인 나그네는 시인이면서 누정의 주인으로 동질화시켰다. 함련에서는 자연에서 완상하는 대상은 물이고 여울이다. 물은 깨끗하여 반추의 형상화 소재이고 여울은 물길을 가는 것을 힘들게 하는 소재이다. 반추와 시련은 당시에 항상 존재했던 것이다. 경련에서는 여울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확대하였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내면의 도와 체, 즉 상도와 본체를 잘 살피는 수양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련에서 결국 자신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세상과 떨어져 살아

23) 한편에는 최근에 만들어진 국회의원을 지낸 송호림(1923-1996)의 편역도 있다.

24) 宋欽, 〈敬次〉, 앞의 책; 金安國, 『慕齋先生集』 卷之三, 詩.

도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바로 송흠이 만년에 살았던 태도를 함축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 시에서 김안국은 도학자적의 유유자적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성찰을 행한 인물로 송흠의 자세를 ‘관수정’에 투영하였다.

신광한의 차운시에서도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다. 송흠이 퇴로한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수양에 게으르지 않고 공맹의 도를 닦았는데, 특히 맹자의 ‘觀水有術, 必觀其瀾’을 수양의 방법 삼아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도 않고 행할 수도 없었다고 하였다.²⁵⁾ 이처럼 당대 환로에서 함께 했던 인물들의 차운시는 ‘관수정’ 주인이 추구했던 자세를 형상화하고 간접적으로 표출하였다.

그렇다면 제자는 차운시를 통해서 노래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푸른 암벽 구불구불하고 물은 투명하여 차가운데	翠壁盤回水鏡寒
정자로 흘러내리니 아로새긴 난간도 서늘하네.	當流亭子爽雕欄
바람이 가느다란 물결에 부니 고기 떼를 이루고	風吹細浪魚成隊
갈매기 맑은 파도에 나가니 넘치는 여울 눈 같네.	鷗蹴清波雪漾灘
희디 흰 산 구름이 그윽해지자 기쁨을 더하고	白白山雲幽更悅
쌍쌍이 돌아가는 새는 저물어지자 누각을 두르네.	雙雙歸鳥暮兼觀
산과 물을 좋아하심은 선생께서 능통하셨으니	仁居智樂公能了
영화나 명예에 어둡고 빠짐은 모두 작은 일이었네.	昏醉榮名摠鼠肝 ²⁶⁾

양팽손은 선경후정의 기법을 활용하여 스승의 인품을 잘 형상화하였다. 수련에서 정자의 위치와 풍광의 운치를 묘사하였다. 함련에서는 맑고 투명한 물에서 노는 고기들의 유영과 세찬 여울에서 보이는 하얀 거품을 눈에 비유하여 그 누정의 맑고 깨끗함을 형상화하였다. 경련에서는 구름의 변화에 따라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돌아가는 새처럼 ‘관수정’에 안주하였다고 하여 당시 스승의 낙향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읊고 있다. 그러한 스승이 ‘仁者樂山, 知者樂水’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을 한낱 쥐의 간처럼 작디작

25) 宋欽, 〈敬次〉, 앞의 책; 申光漢, 『企齋別集』 卷之六, 詩. “爲愛江干草閣寒 又供幽事更添欄 官從白首辭新命 身向青山釣舊灘 動處正須尼聖取 盈時還擬子與觀 分明水鑑清無累 自照何慙見肺肝”.

26) 宋欽, 〈謹次〉, 앞의 책; 梁彭孫, 『學圃先生文集』 卷之一, 詩.

은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 이처럼 양팽손은 차운사에서 스승의 훌륭한 점을 누정이란 소재를 통해서 형상화하여 경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흠의 숙질이며 제자인 송순은 낙향과 고매한 인격을 간접적으로 노래하여 물은 맑고 깨끗함과 여울물이 우레 소리를 내며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을 통해서 송흠의 교결(皎潔)한 인품을 드러내면서 경모하고 있다.²⁷⁾

다음은 송흠의 이웃 고을인 장성에서 살았고 50여년 후학인 하서 김인후의 차운시를 보자.

물 기운 맑고 청량하여 여름에도 차가운데	水氣清泠夏向寒
주인은 일없이 홀로 난간에 기대었네.	主人無事獨憑欄
먼저 오르니 높은 언덕에 임했음을 알겠거니	先登自解臨高岸
용퇴한다면 어찌 급한 여울에 나감이 어려울까?	勇退何難趁急灘
공자 덕성의 완전함은 산과 어울려 즐겁고	孔聖德全山竝樂
소동파 마음 통달한 것은 달과 함께 보았네.	蘇仙意達月同觀
기둥 마루 툇 툇인 하늘 누각에선	軒楹洞豁空中閣
속인들은 끝내 쥐 간을 토해내야 하리.	俗子終須吐鼠肝 ²⁸⁾

김인후는 송흠의 결단력을 높이 사고 있다. 송흠 선생이 여기에 정자를 짓고 할 일이 없어 날마다 난간에 기댄 것이 아니다. 함련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거니와 나가고 물러설 줄 알아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송흠의 출처관은 바로 경련에서 말한 공자의 덕성이요, 소동파의 달관자적 자세이다. 미련에서 시인은 세속적인 사람 즉 세속에서 추구하는 명리와 부귀영화에 안주한 사람은 여기 와서 쥐의 간처럼 작디작은 것까지도 토해내어 물과 같이 맑고 깨끗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당부는 당대를 살아가는 유자들의 정신적 가치를 안으로 배우면서 밖으로는 세상에 당부하여 송흠을 경모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27) 宋欽, 〈謹次〉, 앞의 책; 宋純, 『俛仰集』卷之一, 詩. “畫閣玲瓏俯碧寒 每憐淨澄獨憑欄 涵秋洗鏡開平浦 噴雪晴雷下急灘 皎潔此心曾合契 淵源一派也宜觀 百年交養知如許 冰玉崢嶸照肺肝”.

28) 宋欽, 〈敬次〉, 앞의 책; 金麟厚, 『河西先生全集』卷之十, 七言律詩.

끝으로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차운시가 실린 그의 둘째 아들은 어떤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는가를 보자.

산은 상쾌한 기운 머금고 물은 서늘함 머금어	山含爽氣水含寒
모두 시내 정자에 들어 굽이굽이 난간 둘렀네.	都入溪亭繞曲欄
흩어진 백 동파는 밝은 거울에 어른거리고	散百東坡搖寶鏡
셋이 된 이태백은 푸른 여울에서 일렁이네.	成三太白動清灘
금린어가 헤엄치며 노니 정말 감상할 만하고	錦鱗遊泳眞堪賞
구름 그림자 이리저리 돌아다녀 또한 볼 만하네.	雲影徘徊亦可觀
우러러 아버님의 마음의 흥취를 기록한 책 읽으니	仰讀家君詩興記
늠연히 집안의 가훈은 마음에 새김이 합당하네.	凜然庭訓合銘肝 ²⁹⁾

송익경은 아버지의 유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자세를 형상화하였다. 풍광 좋은 곳의 정자는 상쾌하고 물이 있다. 그래서 소동파(蘇東坡)가 그의 〈범영시(泛穎詩)〉에서 내가 여럿 되었다가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말하거나 이백(李白)이 〈월하독작(月下獨酌)〉에서 내가 술잔 속과 그림자로 셋이 되었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거울처럼 맑은 물과 여울의 풍광은 누구라도 마음을 그렇게 바뀌버린다고 하였다. ‘관수정’이 비록 그러한 풍광을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아버지가 남긴 글 속에서 가훈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겠다는 자세를 읊고 있다. 이처럼 ‘관수정’에 아버지를 투사하여 경모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의 차운시에서는 ‘관수정’의 객관적 경관을 재현하면서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관적 심상의 구현하여 송흥의 운둔에 공감하고 있다. 즉 송흥의 운둔에 대한 의미 해석을 차운시에서 기억의 재생산을 통해서 경모의 이미지로 이행되고 있다. 다만, 아들은 운둔의 세계보다는 선친의 유지로 받아들여려 한다.

29) 宋欽, 〈伏次〉, 앞의 책, 宋益愷.

4. 오응석의 ‘관수정’에 대한 선양(宣揚)의 이미지화

오응석의 ‘관수정’(觀水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의 산기슭에 있다. 건물은 정면 3칸이고 측면은 2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이루어졌다. 오씨가 이 마을에 들어와 산 짓은 오자치(吳自治)의 증손이며 오희중의 부친인 오언인(吳彦仁)이 길지라고 하여 이주하여 세거하였다.

‘관수정’은 오응석이 만년인 66세(1726년)³⁰⁾ 큰할아버지인 오겸(吳謙)의 옛터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달았던 편액이었으나 1840년경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다가 8세손 오형수의 발의로 1941년에 중건하였으며 이후 1987년에는 정자의 규모 및 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러 건물 전체를 뜯어 다시 중창하였다. 이러한 두 번의 중창을 진행하면서 문중과 이웃, 그리고 호모하는 지역 유지들의 차운시를 모아 놓은 책이 바로 『금성세고』이다. 이 문집에는 정자 주인인 오응석의 시문인 7언 절구 5제 8수와 7언 율시 16제 17수가 실렸는데, 이 7언 율시 중에 끝에 〈관수정원운〉이 실려 있다. 이 시의 각운 자는 ‘椽, 川, 天, 圓, 仙’이다. 이후에는 두 번에 걸친 중건의 차운시가 실려 있는데, 현손인 상화(相華) 등 종족인 43인의 차운시와 의방재 박경양(朴敬陽 1867-?) 등 이성(異姓)의 지역 문인과 학자 등 185인의 차운시가 실려 있다.

오응석은 환로에 나아가지 않고 은일한 처사였다. 그럼에도 100여 년간 묵혀졌던 곳을 중건하고 다시 확장했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러한 모습을 추론하기 위하여 환로에 나가 활동했던 지역 문인 그리고 후손들의 차운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 문인들의 차운시 두 편을 보자.

(가)

광산 땅 높은 언덕에 몇 칸의 집을 지으니
흐르는 물이 돌고 돌아 한 개 내가 되었네.
예와 같은 풍경 오래도록 땅에 있었지만

廣山高頂數間緣
流水盤回作一川
依舊風烟長在地

30) 『누정제영』, 광주직할시, 1992, 53쪽.

봄을 맞아 꽃과 버들이 충분한 날씨네.	際春花柳十分天
관조하니 저절로 마음에 터득한 것이 있어	觀來自有心乎得
거슬러가니 다시 지혜 또한 원만함을 따르네.	溯去還從智也圓
이 늙은이의 당시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追憶斯翁當日事
범인들을 초월한 그 솜씨 진실로 신선 같구려.	超凡其術固如仙 ³¹⁾

(나)

산기슭에 높게 두어 거듬 집을 지으니	斷麓抖高重起椽
풍월 정자가 맑은 냇물을 굽어보네.	風欄月榭俯晴川
나지막 푸른 빛 이어 들녘에 이어지고	低連霽色平開野
아스라이 맑은 빛 띄워서 하늘에 비치네.	遙挹澄光暎薄天
시간은 흘러가도 정자는 그대로니	逝者如斯亭子在
쇠약한 이 부축해 한번 오르니 선경에 가깝네.	扶衰一上蓬瀛近
저렇듯이 우뚝하여 너부뒀는 아름다우니	巍乎若彼廣山圓
세상 잇고 산 군현은 모두 신선이네.	遺世群賢盡是仙 ³²⁾

(가)는 함평출신의 근래 유학자인 박경양(1895-1977)³³⁾의 차운시이다. 이는 1941년에 관수정을 중건할 때 쓴 시로 추측된다. ‘관수정’은 언덕과 물의 조화를 이룬 곳에 우뚝 서 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시절과도 조화를 잘 이룬다. 천지가 조화를 이루었다. 여기서 세상을 관조하여 지혜를 터득했으니 이곳의 주인은 신선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광산에 거주했던 인물로 추측되는 양일묵(梁鎰默)의 차운시이다. ‘관수정’의 아름다운 풍광을 ‘풍월 정사(風欄月榭)’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시의 수사상 평측을 고려한 표현이다. 또한 정기가 모여서 ‘제색(霽色)’과 ‘징광(澄光)’이라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 서린 곳이 바로 ‘관수정’이다. 이런 곳에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정자가 남은 것은 봉래(蓬萊)와 영주(瀛洲)처럼

31) 朴敬陽, 〈次韻詩〉, 『錦城世稿』.

32) 梁鎰默, 〈次韻詩〉, 『錦城世稿』.

33) 박경양(朴敬養 1895-1977) : 자는 중직(仲直), 호는 춘산(春山) 호는 의방재(義方齋)이며 전우(田愚)에게 수학하였고 문집으로 『春山遺稿』가 있다. 『錦城世稿』에는 ‘義方齋 朴敬陽’으로 되어 있으나 동일인이다.

신선이 사는 세계와 가깝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여기에 숨어살았던 이는 모두 신선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두 시인은 ‘관수정’의 선계적인 환경과 거기서 은일자로 살았던 이가 신선과 같다고 하였다. 즉 두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수정’ 주인의 인품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은일자로의 고고한 삶을 영위했던 인물의 태도와 자세를 드러내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러면 가문에서는 ‘관수정’을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을까? 먼저 집안 현손의 작품을 보자.

물결 살피는 곳에 이러한 집이 있으니	觀瀾之處有斯椽
아름다운 집 층층 누각은 푸른 내를 눌렀네.	華棟層欄壓碧川
먼저 동산에 막 달이 오르니	先得東山初出月
하늘 가운데 북극성을 잡을 수 있겠네.	可攀北極半空天
사시의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 심란함 견디니	四時佳景堪爛
한 줄기 맑게 흘러 길은 다시 원만해지네.	一派清流道更圓
만약 화가를 시켜서 이 경치 본뜨게 한다면	若使彩工模此勝
그림 속 정자요 그림 속 신선이로세.	畫中亭子畫中仙 ³⁴⁾

현손인 오상화(吳相華)의 차운시는 ‘관수정’에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수련과 함련에서 ‘관란(觀瀾)’과 ‘북극(北極)’의 소재를 통해서 고조부의 수양과 품성을 말하고 있다. ‘관란’은 앞서 말했지만 맹자가 추구하는 수양의 방법이다. ‘북극’은 일반적으로 인륜과 도덕적으로 모범을 상징하니 고조부의 수양방법과 인품의 훌륭함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하나는 경관의 아름다움이다. 사시 사철 아름다운 경치로 심란한 마음마저 원만해지게 하는 곳이 바로 ‘관수정’이다. 그렇기에 신선의 세계라고 하였다. 이처럼 고조부는 신선이 살만 한곳에서 수양하여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인물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직계 원손(遠孫)들의 차운시 두 편을 더 보자.

34) 吳相華, 〈次韻詩〉, 『錦城世稿』.

(가)

남긴 터에 띠풀 베고 집 서까래 얽으니	遺址誅茅架屋椽
의연히 높은 곳에 서서 장천을 베었네.	依然埭塹枕長川
맑게 갠 산봉우리 한밤중 달이 뜨면	晴峯夜得三更月
옛 나루터 가을에는 푸른 하늘이 되네.	古渡秋生一碧天
종일 돌아가지 않아 모두 제월 같으니	竟日忘歸盡累霽
사계절은 도심의 원융(圓融)을 버리지 않네.	四時不舍道心圓
문미 편액의 화려한 글씨 명실을 갖추고	扁楣華額齊名實
우리 할아버지 당시엔 신선의 재주 가지셨네.	吾祖當年有術仙 ³⁵⁾

(나)

하루도 안 되어 냇가 가까운 집을 거듭 완성하니	不日重成近水椽
흡사 무이산 계곡의 아홉 구비 시내와 같구려.	恰如九曲武夷川
물길 갈래는 길어 동쪽 바다로 달려 갈 수 있고	派長能走東邊海
봉우리 우뚝하여 하늘에 북두칠성에 오를 수 있네.	峯屹可攀北極天
선조께서 사셨던 터전 영구하고	先祖當年基永久
후손들이 사는 이 날엔 모임이 단란하여 원만하네.	後孫是日會團圓
지금껏 미루어 생각하니 이내 느낀 것이 많지만	于今追想仍多感
몰래 우화등선의 선계에 살아가게 되었네.	偷得徜徉羽化仙 ³⁶⁾

(가)는 7세손 오방선(吳邦善)의 차운시이다. 남겨진 터에 ‘관수정’을 증건한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한편에서는 밝은 달과 푸른 하늘을 통해서 ‘명(明)’과 ‘벽(碧)’의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로 승화시켰다. 미련에서 ‘관수정’은 할아버지의 도심(道心)이 녹아들었으며 신선의 재주를 가진 곳이기에 선계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결국 시인은 누정의 풍광을 선계 모습으로 승화시켜 할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하였다.

(나)는 8세손 오태수(吳泰洙)의 차운시이다. 역시 할아버지께서 꿈꾸었던 세계를 선계로 표현하고 있다. 누정이 증건된 모습은 주자의 무이 계곡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주자가 〈무이구곡가〉에서 노래한 무이 계곡은 단순히 자연경물의 미감

35) 吳邦善, 〈次韻詩〉, 『錦城世稿』.

36) 吳泰洙, 〈次韻詩〉, 『錦城世稿』.

만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물이라는 근원적이며 정신적 물질을 통해서 마음의 진리와 외적 흥취를 노래한 것이다. 시인은 할아버지의 누정이 주자가 인식한 세계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곳에서 수양하면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 것처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금성세고』에 실린 차운시들은 위와 같이 누정을 주관적인 심상으로 구현하여 벼슬에 나가지 않은 처사를 은일자로 이미지화하였다. ‘관수정’은 그런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공감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 사회가 문중 중심으로 이루어진 향촌 사회를 형성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문중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전승과 계승에 치중하였다. 문중의 족보 간행, 선조의 문집 간행, 훼손된 서원의 복원, 퇴락한 누정을 중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은 선조의 학덕을 선양하여 자신들의 사업을 합리화하였다.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중의 결속을 위한 문중 의식의 고양이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선양이다.

5. 결 론

누정의 창건은 퇴사하고 낙향한 선비들이 노년을 한가롭게 지내기 위한 장소로 또는 그들을 위해 문중이나 제자, 친지들이 창건하거나 초야에 묻힌 선비가 혼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은일공간으로 창건하였다. 그러나 이 누정의 공간은 개인만이 아니라, 향리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던 것도 사실이다.

송흠과 오응석의 ‘관수정’도 이와 같은 문화 공간으로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비록 한 사람은 환로에서 낙향한 선비이고 한 사람은 향리에 머물며 살았던 처사라는 입장이 다르고 시대적으로도 차이나지만 그들이 거처했던 누정은 같은 역할을 하였음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의도했던 누정의 의미가 후세에 어떻게 이미지화하는가를 단편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사람이 공히 썼던 ‘관수’이라는 편액의 의미는 그들이 쓴 시를 통해서 자연물을 통한 격물치지의 자세를 드러내고 아울러 자신의 깨끗하여 고고한 인품을 드러냈다. 이러한 의미는 중건 후에 쓴 중건기에서는, 후인들이 ‘관수’의 의미를 공자와 맹자의 전고를 활용하여 구체적이며 체계화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후인들의 차운시는 두 사람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미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송흠의 경우는 동료나 제자 그리고 후인들의 시에서 그의 고매한 인품의 경모를 드러냈다. 그리고는 아들은 더 나아가 ‘관수정’에 아버지를 투사하여 가훈으로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모든 이가 송흠이 관수정에 낙향하여 살았던 모습을 경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오응석의 경우는 처사로서의 존귀한 인품과 학덕을 선양하려 하였다. 향리의 후학들은 관수정을 선계로 그리고 은일자로서의 고고한 삶을 영위했던 삶을 선양하였다. 문중의 후손들은 할아버지의 깨끗한 인품을 더더욱 선양하였다. 이러한 선양은 20세기 초의 문중 결속을 위한 의식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두 누정의 주인공 원운에 대한 차운시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들이 처음에는 선현을 칭송하고 선조나 스승을 찬미하다 20세기 초에는 효사상으로 옮겨감을 알 수 있었다. ‘전승’과 ‘계승’이라는 관점에서도 후인들이 누정의 원주인을 ‘경모’하던 ‘선양’하던 간에 원주인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宋欽, 『知止堂遺稿』.

羅州吳氏, 『錦城世稿』

林悌, 『林白湖集』

『樓亭題詠』, 광주직할시, 1992.

2. 논저

권수용, 「노사학파의 누정 건립활동 연구」, 『石堂論叢』 49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1.

(UCI: G704-001833.2011..49.007)

김신중, 「전남의 누정과 그 연구 동향」, 『국학연구론총』 제8집, 태민국학연구원, 2011.

(UCI: G704-SER000003095.2011..8.006)

박준규, 「전남의 누정제영 연구-조선후기 연작제영을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第二十四輯, 湖南文化研究所, 1996.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조선전기시단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오용원, 「高靈 樓亭의文學的 解釋과空間 機能」, 『退溪學과韓國文化』 第45號,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2009.

(UCI: G704-001229.2009..45.009)

이강로·장덕순·이경선,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시인사, 1987.

이국진, 「조선시대 「南山詩」 차운시의 양상과 문학적 특징」, 『어문논집』 70, 민족어문학회, 2014.

(UCI: G704-000917.2014..70.006)

이상식, 「전남지방 누정의 역사적 의미」, 『湖南文化研究』第二十四輯, 湖南文化研究所, 1996.

이현우, 「16-18세기 영·호남 누정에 깃든 문화경관의 의미론적 해석-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 『문화재』 제45권 제1호, 2012.

(UCI: G704-SER000010438.2012.45.1.011)

정청주, 「조선후기 전남지역 사족의 누정건립-누정의 문각 기능-」, 『湖南文化研究』第二十四輯, 湖南文化研究所, 1996.

최재율, 「전남지방 누정의 성격과 기능」, 『湖南文化研究』 第二十四輯, 湖南文化研究所, 1996.

황민선, 「光州 風詠亭 次韻詩 고찰」, 『古詩歌研究』 第28輯, 한국고시기문학회, 2011.

(UCI:G704-001062.2011..28.009)

| Abstract |

Visualization of Nujeong through Rhyme-borrowing ‘Gwansujeong’ Poems —Focus On Song Heum and Oh Eung-seok’s Two Gwansujeong —

Oh, Gi-ju

Nujeong (樓亭), which has the floor high up from the ground without walls so as to view all sides, means “tower and pavilion.”

Nujeong were erected as a place for scholars retired or leaving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countryside to spend their elderly years leisurely, or Nujeong were erected by such scholars’ clans or their disciples or their relatives or were erected as a seclusive space for such individual scholars to live in alon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Nujeon space was settled not only for individuals but also for the local cultural space.

Among many local Nujeong, our attention is paid to materials from Gwansujeong Pavilions of Song Heum and Oh Eung-seok. That is because Song Heum served as a governmental official and retired, while Oh Eung-seok, while staying in the countryside, lived a seclusive quiet life. Literary documents have remained that give a glimpse of the two persons’ Nujeong lifestyles. The two Nujeong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within a distance of about 16km that are located in Jangseong-gun, Jeollanam-do and in Gwangsan-gu, Gwangju.

Later generations wrote poems by borrowing the two persons’ poetic rimes, which made different images between two persons. Poems written by Song Heum’s colleagues or his disciples and later generations revealed their respect for his upright personality. Furthermore, these injected the father image into Gwansujeong, and embraced the teaching as their family motto. As such, all focused on respecting Song Heum who left the government office for the countryside.

Poems dedicated to Oh Eung-seok embraced his honorable personality and scholarly virtue. Local disciples described Gwansujeong as a divine world and embraced his upright and solitary life. Descendants of his clan further embraced their grandfather’s clean personality. Such efforts were made presumably for the purpose of uniting their clan in early 20th century.

From the poems borrowed from the dwellers of the two Nujeong, it is presumed

that their descendants praised their forefathers and teachers and embraced the spirit of filial piety.

Key words : Nujeong (樓亭), Rhyme-borrowing Poems(次韻詩), Song Heum, Oh Eung-seok, Visualization, reveal, respect.